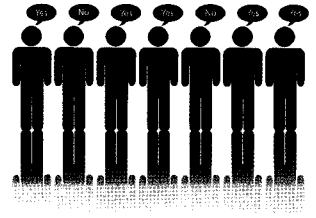


표준화에 있어서의 “컨센서스”



이 철 회 베리타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국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서투른 것 같다. 의견이 다른 것이야 어찌보면 당연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인데, 입장 차이를 줄이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들에게는 ‘합의’라는 DNA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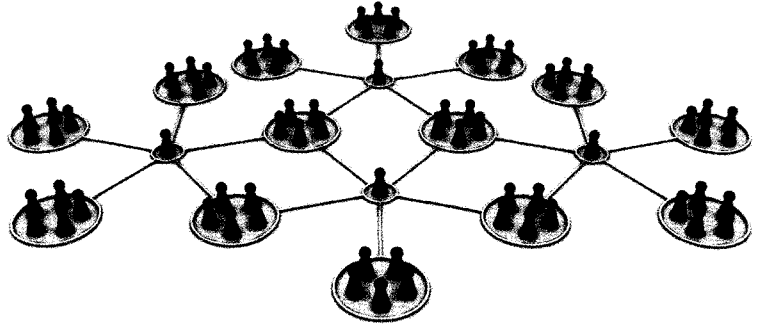


합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여하라고 연수를 보내면 어떨까.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합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말이다. 표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양한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함에서 오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없애고자 합의 아닌가. 다양한 의견(기술)들이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원만하고 적절한 의견수렴 방식은 필수적이다.

ISO, ITU, IEEE-SA 등의 국제표준화기구들은 하나

같이 서구 선진국들의 철학과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기구들에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소위 ‘컨센서스(Consensus)’ 원칙이 강하게 작용한다. 컨센서스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니, Merriam Webster 사전은 ‘the judgment arrived at by most of those concerned’로, Collins Cobuild 사전은 ‘general agreement among a group of people’라고 정의한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도달한 결론’ 내지는 ‘그룹 내에서의 일반적 합의’ 정도로 대략 이해된다. 필자더러 정의하라면 ‘치열한 수면 위아래의 논의와 싸움 끝에 표준 참가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대세로서의 결론’라고 설명하고 싶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컨센서스에 대해 ‘The views of all interests are taken into account: manufacturer, vendors and users, consumer groups, testing laboratories, governments, engaging professions and research organizations.’라고 정의했다. 다양한 관련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의미이다. 실무적으로는 특히 표준화 프로세스 6단계 중 3단계인 ‘Committee Stage’에서 컨센서스를 강조한다. 워킹그룹의 작업의 결과로 Committee Draft를 작성하는 이 단계에서 표준참여자들 간에 컨



센서스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필요시 투표도 하는 것이다.

IEEE-SA에서의 컨센서스란 'Agreement among the majority'를 의미한다고 한다. '다수자들 간의 합의'로서 '과반수'를 강조하여 '전체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으로 표현하는 ISO와는 다소 다른 뉘앙스가 풍긴다. 다시 말해 다수 내지는 유력 참여자를 우선시하는 느낌이 든다. 절차상 IEEE-SA는 투표(Balloting) 과정에서 컨센서스를 특히 강조한다. IEEE Rules에 따르면, Balloting Group 중 75% 이상이 참가하고 참가자 중 75%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컨센서스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경우든 참여자 다수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Ballot 그룹 멤버가 제시하는 어떠한 Ballot comment라도 이를 무시해서는 안되고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수가 찬성하는 표준안이 소수 의견에 의하여 수정되는 일도 흔하다. 결국 표준 자체의 골격은 다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소위 윈-윈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수가 원하는 표준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수자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가능해진다.

표준화 회의에서 만장일치라는 것은 도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수

적으로 다수가 이기는 다수결 원칙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표결에서 진 소수는 안티세력이 될 수가 있다. 결국 찬성과 만족을 극대화하고 반대와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들은 '컨센서스'라는 거대한 원칙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대립하는 안이 있다고 할 때, 합의가 잘 안되면(컨센서스에 도달하지 못하면) 될 때까지 논의하고, 그래도 안되면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두 대안을 섞어서 융합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표준을 만들고, 이렇게도 합의가 안되면 양자를 모두 인정하여 복수표준을 제정하는 것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컨센서스 정신이다.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를 억압하고 자기들만의 의지를 관철하는 무자비한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선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인 것이다.

컨센서스를 단순히 의사결정을 위한 기법으로만 보면 안 된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민주주의의 운영 경험에서 나온 서구인들의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는 원칙이다. 부러질지언정 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최선만을 고집하다가 합의는 커녕 밥통을 통째로 깨버리는 우를 범 먹듯이 범하는 우리네 정치와 사회현실을 보면, 경직된(또는 불가능한) 최선을 버리고 과감하게 차선을 선택하여 다수가 만족하는 '컨센서스' 정신은 표준화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TTA